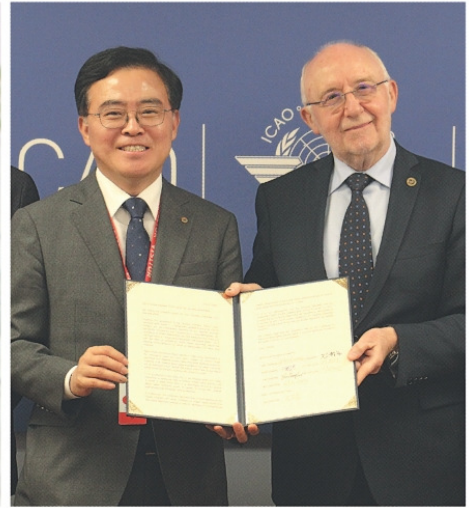




원목 진교훈 구청장이 지난 9월 '기차 설명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진 구청장(왼쪽)이 지난 6월 ICAO 본부 의정 회의실에서 실버토레 사카토노 의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7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탄력... 김포공항~마곡~가양 '신경제축' 시동

수평표면 기준 45~80m' 방안 제시... 개선 물꼬
마이스·항공산업 연계 서남권 미래경제벨트 구축
공항 일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4兆 경제 효과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고혁신단체대상'과 '종합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정 여건과 도시 성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도시 재도약 기반 마련,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주민 보호 행정 등 다양한 혁신 성과를 이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경제 신문사가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평가는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성과와 혁신 역량을 종합 검증해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58개 기관이 참여했다.

● 70년 숙원 해결 가시화... 고도 제한 완화로 도시 잠재력 회복
이번 수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성과다. 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 제한에 묶여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진교훈 구청장은 취임 직후 고도

제한 문제를 '도시 성장의 핵심 규제'로 규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국회 세토나 개최, 전문 연구용역 실시, 국토부·서울시 정책 협의, ICAO 본부 방문 등 다층적 전략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ICAO 개정에 맞춰 구에 최적화된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수평 표면 기준을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파도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 제안했다.

특히 지난 6월 ICAO 의장과의 정식 면담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은 고도 제한 해제 가능' 내용과 '2030년 전 전면 시행 가능' 입장을 확보하며 국내 제도개선의 물꼬를 텄다.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가치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속도도 가속화했다.

현재 구는 47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0개 모이타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주민 참여와 사업 진척이 크게 향상됐다.



위 진 구청장이 지난해 4월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미제화사업 추진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아래 진 구청장이 지난 5월 '한술두한 김포공항점'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서남권 미래경제 벨트 구축
구는 김포공항·마곡·가양을 잇는 '신경제축'을 본격 가동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마이스(MICE), R&D, 항공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연계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미래경제 벨트를 구축 중이다.

김포공항 일대는 2024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돼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미래교통허브와 모빌리티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편된다.

2023년까지 총 2조9404억원이 투입돼 복합환승센터·UAM 이착륙장, 항공업무·산업시설,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약 3만개 일자리와 4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마곡지구는 초대형 마이스 복합단지인 '코엑스 마곡'이 들어서면서 기업 행사·국제 전시·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를 유치해 국제적 경제행사 개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가양·ظم 일대는 CJ 부지·아파트 부지 복합개발이 속도를 내며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반시설 정비와 상권 활성화가 맞물려 지역 경제 활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 관제자는 '김포공항 혁신지구, 마곡 마이스 단지, 가양·ظم 복합

개발이 하나로 연결되면 강서구 전역이 단일 경제권으로 기능하는 '신경제축'이 완성된다'며 "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최초 전세시기 전수조사·조례 제정... 법과 현장을 바꾼 강서
구는 전세 시기 문제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펼쳤다.

전국 최초로 피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시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소송·복구비 지원을 통해 1000여명에게 10여억원을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왔다.

피해 주민들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려 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 재개발 안전 강화·어르신 일자리 확대... 초고령사회 대응 선도
구는 재난 대응과 고령사회의 대비 정책에서도 성과를 냈다.

서남권 최초 마곡안전재난관은 개관 1년여 만에 152명 이상이 참여하며, 화재·지진·음급 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 92.5%를 기록했다. 빗물 저류조를 교육시설로 전환한 혁신지 활용은 도시 안전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은 상해유류장해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100만원을 보장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704명에게 총 1만194원을 지급했다.

노인 일자리는 2023년 3566개에서 2025년 5433개로 52% 증가했다. '공향스포터즈', '불불학교 지원단', '안전보안관' 등 경력 기반 맞춤형 일자리와 카페·공방·점점주·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고령층을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 자원으로 제정했다.

참여 만족도는 90%를 넘어 전문가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진교훈 구청장 "강서 혁신, 현장에서 시작... 구민이 웃는 도시 만들 것"
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도 제한 기준 완화와 ▲재개발·도시재생 지속 추진 ▲신경제축 완성 ▲전세시기 피해 회복을 제고 ▲안전정책 고도화 ▲초고령사회의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강서의 혁신은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복잡한 문제도 답은 주민 속에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반응하는 행정이 진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진 기자 zini@sininilbo.co.kr

